

눈 속에서 묻고, 구름 속에서 답을 듣다

한시·글. 윤호 이진호 / 서예. 예천 박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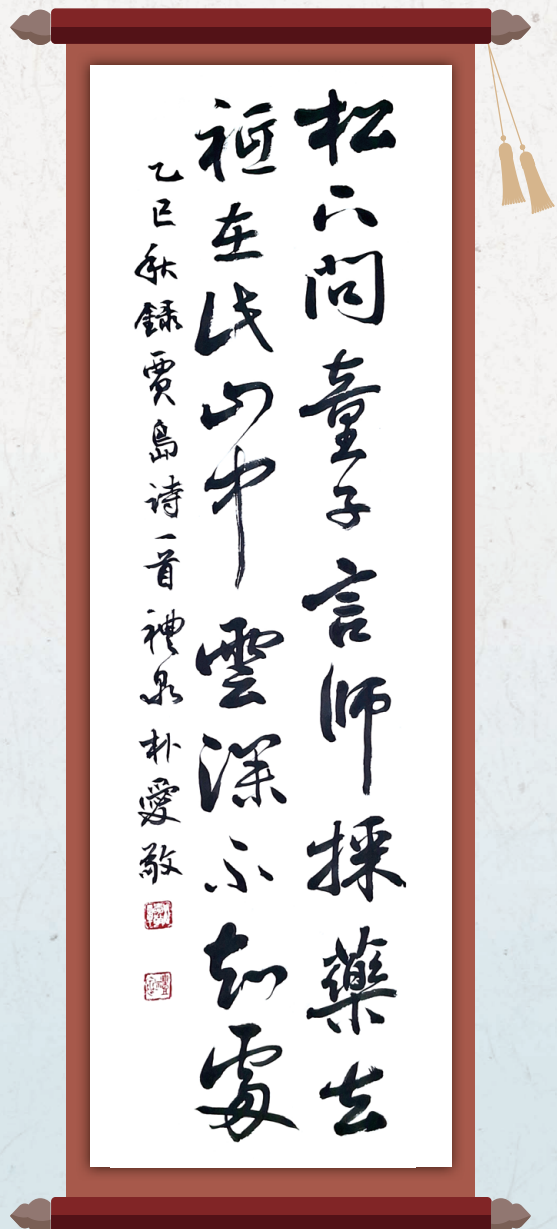
계절의 경계, 마음이 먼저 당도하는 새해

양력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삶의 결까지 단숨에 바뀌지는 않는다. 숫자는 차갑고 명확하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절기와 계절은 느리고도 묵직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새해는 달력 위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 끝에 미세하게 섞인 흙 내음과 얼어붙은 땅 밑에서 태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느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올해 설은 내게 유독 각별하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지난해 봄,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맞는 설날이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선산에 올라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오랜 가도(家道)이자 지켜 온 습관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인사의 대상에 아버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무겁게 눌렀다. 대한(大寒) 추위가 맹렬하던 때, 나는 홀로 선산으로 향했다. 해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첫 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먼저 재촉하고 있었다.

가도(賈島)의 시, 그리고 겹쳐지는 발걸음

산 초입에 들어서자,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쌓여 있던 눈 위에 다시 가벼운 눈발이 겹겹이 얹히고 있었다. 길은 희미했고, 발밑의 단단한 흙은 보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백색의 침묵 속에 잠겨 드는 풍경 속에서, 문득 당나라의 시인 가도(賈島)가 떠올랐다. 그가 남긴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의 장면이 지금 나의 발걸음 위로 선명하게 겹쳐졌기 때문이다.



尋隱者不遇 (심은자불우)

松下問童子 (송하문동자)

소나무 아래서 동자에게 물으니,

言師採藥去 (언사채약거)

스승님은 약 캐러 가셨다 하네.

只在此山中 (지재차산중)

다만 이 산 어딘가에 계시겠지만,

雲深不知處 (운심부지처)

구름이 깊어 계신 곳을 모르겠노라.

소나무 아래에서 스승의 행방을 묻는 시인의 마음과 눈 덮인 산길을 오르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나의 마음이 무엇이 다를까. 가도의 시는 단순히 만남의 실패를 노래하지 않는다. 찾고 있으나 만날 수 없고, 묻고 있으나 답은 산과 구름 속에 흩어지는 그 묘한 '부재의 현존'을 보여준다. 나 역시 아버지를 찾으러 왔으나, 아버지는 이미 저 깊은 구름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은 아닐까. 발을 땄 때마다 사각거리는 눈 소리가 '가도'가 던졌던 질문의 메아리처럼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가도(賈島, 779~843)

당나라 중기의 시인으로 자는 낭선(浪仙). 한때 승려였으나 한환속하였다. 한 글자를 정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했던 그의 태도는 오늘날까지 문장가의 표본이 되고 있다.

'퇴고(推敲)'의 유래

가도가 어느 날 「제이응유거(題李凝幽居)」라는 시를 짓다가 다음 구절에서 막혔다.

“閑居隣並少, 草徑入荒園. 鳥宿池邊樹, 僧()月下門.”

(한가로이 사니 이웃이 적고, 풀 난 길은 거친 정원으로 드네.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

이때 괄호 안의 글자를 '밀 퇴(推)로 할지, '두드릴 고(敲)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손짓으로 미는 시능과 두드리는 시능을 반복하며 넋을 놓고 가다가 당대 문장의 대가였던 한유의 행차와 부딪혔다.

사정을 들은 한유가 “두드리는 ‘고(敲)가 더 운치 있네”라고 조언해 준 것에서 '퇴고(推敲)'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비석에 던진 질문: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가까스로 묘소에 이르렀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비석이었다. 말없이 서 있는 돌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름만을 새긴 비석은 지독히도 고독해 보였다. 나는 그 말 없는 돌 앞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가도가 동자에게 묻듯, 나는 비석에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찾으러 왔으나 만날 수 없는 마음, 눈앞에 두고도 만질 수 없는 안타까움은 천 년 전의 시인 가도나 오늘의 나나 다를 바 없었다. 비석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바람만을 내어주었다.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어찌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섭리의 한 문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한 수의 시로 빚어낸 이별의 풍경

묘소에서 그 서늘한 깨달음과 아련한 그리움을 갈무리하여 시 한 수 지어 보았다.



歲暮詣先墳 (세모예선분)

歲暮期雲去父墳 (세모기영거부분)

세모에 눈발을 헤치고 아버지 묘소로 가서,

孤碑石問考何云 (고비석문고하운)

외로운 비석에 묻는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가?

無言指示獐蹤迹 (무언지시장종적)

(비석은) 말없이 노루의 발자국만 가리킬 뿐인데,

雪急山深谷滿雲 (설급산심곡만운)

(노루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눈은 거세고 산은 깊어 골짜기마다 구름이 가득하다.

이 시에서 아버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시선이 닿는 곳에는 짐승의 발자국과 첩첩이 쌓인 산등성이,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구름만이 존재한다. 이는 의도적인 ‘부재의 묘사’다. 가도의 시에서 은자가 “이 산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구름이 깊어 알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 역시 아버지의 부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존재의 기운이 자연의 일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었다. 분명 이 선산 어딘가에 계실 것 같지만, 더 이상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의 좌표 위에 설 수는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시의 끝 문장에 담았다.

예천 박애경(禮泉 朴愛敬) 선생의 글씨, 여백이 주는 위로

이 시를 정리하며 며칠 전 감상했던 예천 박애경 선생의 행초서(行草書) 작품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를 떠올렸다. 서예는 단순히 글자를 종이에 옮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글자가 품고 있는 정신의 궤적을 쫓는 일이다. 박 선생의 작품은

단정하면서도 물 흐르듯 유연한 행초서의 미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획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고 묵직한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바람을 타고 흐르는 구름처럼 자유로웠다.

특히 나를 사로잡았던 부분은 ‘운심부지처(雲深不知處)’를 써 내려간 필치였다. 예천 선생의 붓끝은 이 대목에서 살짝 속도를 늦추며 먹의 농담을 조절했다. 짙은 먹색이 점차 옅어지며 종이의 질감이 드러나는 비백과 그 사이의 여백은, 마치 가도가 말한 ‘알 수 없는 그곳’을 시각화한 듯했다. 일부러 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흐릿하게 남겨두는 듯한 필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여백 속으로 자신의 그리움을 채워 넣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예천 선생의 글씨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보는 이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 가도의 시가 주는 여운이 독자의 상상력에서 완성되듯, 선생의 서예 역시 끝내 닿지 못하는 지점을 묵묵히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은자를 찾지 못한 실패의 장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마음’ 자체를 오래도록 붙잡아 두는 예술적 승화였다. 나는 그 작품을 복기하며, 비석 앞에서 느꼈던 나의 막막함 또한 하나의 여백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상상

선산에서 내려오는 길, 내가 올라올 때 남겼던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린 눈에 덮여 희미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위로 사람의 것이 아닌, 작고 가느다란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노루일까, 아니면 산토끼일까. 그 흔적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을 그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다 어느 지점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우리는 늘 명확한 답을 요구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삶의 진실한 장면들은 대개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 속에 머물러 있다. 죽음과 이별, 그리움과 추억 같은 것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좌표로 치환될 수 없다. 끝내 확인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설을 앞두고 다녀온 선산에서의 짧은 방문은, 나에게 ‘찾지 못함의 미학’을 가르쳐 주었다.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기에 나는 더 깊이 사유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비로소 그분의 존재가 내 삶 전체에 어떻게 스며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맺음말: 질문은 남고, 삶은 흐른다

아버지는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던진 질문은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질문은 한 수의 시가 되었고, 예천 선생의 유려한 필치를 빌려 서예의 여백이 되었으며, 이렇게 한 편의 글로 이어졌다. 가도의 시가 천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 오늘날 나의 산길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력을 발휘하듯,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던지는 질문들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한시·글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예천 박애경(禮泉 朴愛敬)**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 서예협회회 감사
- 성균관 한림원 재학 중